



기사와 표적

우리 교회는 개척 이래 지금까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 상공과 국내외 지교회 및 만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곳마다 늘 다양한 모양의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심을 증거한다. 또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가을 중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소멸되며, 소경이 보고 병어리가 말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 난치병이 치료되는 등 무수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구제와 나눔

우리 교회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인들로 구성된 '누가 의료선교회'에서는 무료 검진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힘쓰고 있다.

초대교회를 닮은
만민중앙교회



기도와 찬양

성도들이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동참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불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다. 또한 예능위원회가 있어 예배 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외 성회나 행사 시 다양한 공연으로 기독교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부흥과 선교

부흥에 부흥을 거듭한 우리 교회는 현재 12만이 넘는 등록 성도와 해외 9천여 개 지·협력교회를 둔 글로벌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인터넷, 책자,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널리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있다. 특히 170여 개국 3,300여 개 방송사를 통해 송출되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으로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전해 세계교구화를 이루고 있다.